

지역 매아리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공공후견인 지원

부안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노인을 위한 공공후견제도를 실시하고자 한다.

공공후견제도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후견인을 선임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후견대상자는 치매 진단을 받은 만 60세 이상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독거노인이거나 가족과 친족이 있더라도 학대, 방임, 자기방임의 가능성이 있으면 해당된다.

후견대상자가 되면 의료와 사회복지서비스, 재산관리, 신상보호 등 서류 정보가 필요한 다양한 부분에서 공공후견인의 도움을 받게 된다.

현재 부안군 치매안심센터는 등록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례회의를 통해 후견대상자가 선정되면 가정방문에 후견신청서류를 하여 공공후견인과의 연결이 정해진다.

박현자 부안군보건소장은 "공공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치매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시민 독서 탐방 호응

정읍시는 최근 '한권의 책' 독서운동의 일환으로 지역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 30명과 함께 하는 독서 탐방을 실시했다.

이번 탐방은 올해 정읍시 '한권의 책' 독서운동에 참여한 시민들과 도서관, 독서동아리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청주에서 개최된 2019 대한민국 독서대전에 참여해 지역단체와 도서관, 출판사 등 여러 주체가 연계해 만든 다양한 독서문화를 경험했다.

또한 '한권의 책' 독서운동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토론했고 함께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정읍시 '한권의 책'은 책을 통한 공감대 형성과 지역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범시민 독서운동이다.

올해의 책으로는 '당신이 옳다'와 '감기 걸린 물고기'를 선정해 독서동아리와 지역학교, 작은도서관, 커피숍 등에 배부했다.

이를 통해 함께 읽고 공감과 화합을 이루는 독서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으며 어린이 독서 활동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2천여 명의 시민들이 독서 릴레이에 참여했고 북콘서트와 작가와의 만남, 청소년 반딧불 토론 등을 진행했다. 12월에는 평가회와 작은 음악회 등 마무리 행사가 마련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나누는 기쁨, 풍요로운 추석

정읍시, 소외계층 1500세대 찾아 나눔문화 실천

정읍시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웃을 사랑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소외계층에 나눔을 실천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시는 복지시설과 단체 40개소, 경로당 716개소,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1500여 세대에 총 1억 2천만원 상당의 각종 위문품과 위문금을 지원한다.

재원은 시 자체 사업비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성금지원으로 마련됐다.

시는 중복 지원되는 사례 없이 저소득층에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중위소득 80% 이내 가구를 선별해 소외된 이웃 없는 행복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3일 정읍예목원과 장애인,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입소자들과 관계자들을 위로·격려했다.

또한, 정읍시 공직자들도 이웃사랑 실천에 솔선수범하자는 취지로 위문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나섰다. 복지시설과 저소득층 200여 세대에 생필품을 전달하고 찾아가 위로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다"며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나눔 실천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읍 시민 누구도 소외되는 일 없도록 복지 안전망 체계를 구축해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복지 정읍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추석연휴 악취관리 특별점검 실시

부안군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부안군민들과 귀성객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및 청정부안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오는 20일까지 추석연휴 대비 악취배출사업장 및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점검 및 단속은 오는 20일까지 추석 연휴를 전후로 악취배출시설(가금류 도계공장, 가축분뇨·폐기물 재활용 시설 등) 및 양돈농가 대해서는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부안군은 올해 추석부터는 부안을 방문하는 귀향객 및 관광객이 가축분뇨 냄새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는 일이 없도록 24시간 불철주야로 악취방지단을 운영하여 선제적으로 악취를 예방한다는 각오이다.

그밖에도 연휴기간 중에는 연휴기간 발생될 수 있는 생활민원(악취, 소음 등)에 대해 연휴기간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연휴기간동안에는 비상근무 실시 및 상황실순

영을 통해 민원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관리·감독 소홀 등 취약 시기를 악용한 축산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투기·소각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및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풍성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주요 악취배출사업장 및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관리·감독 소홀 등 취약 시기를 악용한 축산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투기·소각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군민들 및 귀성객들에게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연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읍시 공직자들도 이웃사랑 실천에 솔선수범하자는 취지로 위문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굿피플인터내셔널과 업무협약 체결... 취약계층 연계지원 협의

정읍시가 3일 정읍시청 중회의실에서 사단법인 굿피플인터내셔널(이사장 이영훈)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굿피플 김천수 회장과 경유현 부회장, 강대성 상임이사가 참석했다.

시는 굿피플은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정, 소외이동에 대한 사례발굴을 함께한다. 시는 지역 내 대상자를 굿피플에 추천, 굿피플은 내부규정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해 후원과 생필품 제공 등의 지원을 연계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시는 굿피플이 지난해 지역 내 의료봉사 지원과 소외계층 600세대에 생필품이 담긴 희망 상자 등을 지원해준 것에 대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유진섭 시장은 "취약계층과 위기가정을 발굴하기 위해 힘쓰겠다"며



정읍시가 3일 정읍시청 중회의실에서 굿피플인터내셔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굿피플과 상호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닿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굿피플은 1992년 2월 설립된 국제구호개발 NGO단체이다.

국내에서는 아동 지원, 위기가정 지원, 문화와 의료지원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국외로는 의료지원, 교육 지원, 지역개발 사업 등을 전개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인기배우 공유가 고창군 곳곳을 찾아다니며 찍은 가을 화보를 공개했다.

#고창을 공유하다

인기배우 공유, 고창 주요 여행지 화보 공개

인기배우 공유가 고창군 곳곳을 찾아다니며 찍은 가을 화보를 공개했다. 잘 알려진 읍성과 선운사 뿐만 아니라 고창읍성, 삼양사 절전 등 지역주민들도 '여기가 어딘가' 할 정도로 멋진 공간을 담았다.

3일 고창군에 따르면 코오롱인더스트리FC부문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에피그램(epigram) 전속모델 공유가 2019년 가을·겨울 시즌 고창 화보를 공개했다.

에피그램은 지방 소도시가 지닌 감성적인 문화, 유무형적 자산 등을 활용한 새로운 패셔너블 스타일 창출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엔 고창군과 협업을 통해 고창에서만 느낄 수 있는 오감을 보여줬다.

화보는 '고창에서 살아보기'를 테마로 고창의 선운사, 고창읍성 등 잘

알려진 곳 뿐 아니라 책마을해리, 송림마을, 고창읍성, 용기수려, 삼양사 절전, 서해안 바닷공원, 들리풍경, 상하농원 등 고창만의 스토리가 담긴 장소 11곳을 보여줬다.

'살아보기'가 주제인 만큼 특정 상품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닌 고창과 고창에서 만난 사람들이 함께 여유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화보가 공개되자 SNS상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밖에 고창의 대표적 먹거리인 '북분자'의 자켓빛 색깔을 활용한 12종의 의류를 출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봄 경남 하동에서 공유 화보 촬영지를 둘러보는 여행 코스가 생겨났을 정도로 국내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창=김영섭 기자

고창 배 13.6톤 올해 첫 미국 수출 길 올라

전국 최고의 당도를 자랑하는 고창 배가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으로, 미국 수출 길에 올랐다.

3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배농조합법인이 이날 고창군 농산물유통센터에서 대미수출을 위한 컨테이너 선적 작업을 진행하고 수출기념식을 열었다.

이번 수출 물량은 2개의 농가가 정성스럽게 키운 황금배 13.6톤(약 4000만원)이다. 고창배의 올해 총 수출 예상 물량은 800톤(25억원 상당)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30%늘어 고창 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고창 배는 미네랄이 풍부한 황토에서 성장하여 모양이 고르고 품종 고유의 향이 살아있고, 껍질이 얇고 과육이 연하며 높은 당도를 자랑한다.

고창군은 2003년부터 미국, 대만, 베트남 등에 수출을 진행해 한국 배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수입업체인 (주)리마글러벨은 "미국에서도 배가 생산되지만 맛과 품질 면에서 고창 배를 따라올 수가 없다"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고창에서 생산되는 청정한 배라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적극 알리겠다"고 전했다.

고창배농조합 박영남 대표는 "올해 양호한 기후 조건으로 전년 대비 배 수확량이 늘어날 전망이다"며 "전 세계인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고창 배가 되도록 더욱 영농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유기상 군수는 "고창배가 한국을 대표하는 과일로 제값 받는 농업을 구현할 효자품목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노력을 다하겠다"며 "해외 시장으로 지속적인 수출을 통해 배 수출 및 생산 농가의 소득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섭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several bottles of wine, a cartoon bear mascot, and various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lists different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